

**「한국철도공사 영주지역본부 존치」**

**결 의 문**

- 
- 의결일자 : 제10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 2006. 1. 20 )
  - 결의문 송부처 : 한국철도공사,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부  
지역국회의원(장운석 의원)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 

**영 주 시 의 회**

## 한국철도공사 영주지역본부 존치를 위한 결의

영주시는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찬란한 유물문화유산 및 우수한 특산물 등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 개발정책에서 소외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공동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영동선, 경북선이 교차하는 철도 교통 중심도시로서 국가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하여 왔으며, 또한 철도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최근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발 소외지역에 건설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이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전 시민이 뜻을 모아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좌절됨으로써 실망감과 소외감으로 가득한 이때,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근 반세기동안 지역경제는 물론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영주지역본부를 3개지사로 전환하여 그 규모를 축소한다는 데에 대하여 모든 시민과 함께 망연자실하여 넓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영주시의회는 「한국철도공사 영주지역본부」가 영주시에 존치하여야 함은 물론 낙후된 철도시설의 개선과 중앙선 복선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국철도공사 영주지역본부」는 영주의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핵심기관으로서 지사로 축소될 경우 지역경제의 몰락과 인구 감소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지사화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오히려 기능강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5도2촌 시대를 맞아 강원지역 관광지와 경북북부 유별 문화권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중앙선 복선화사업을 중앙선 전 노선으로 확대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이제까지는 경부선과 호남선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주축이었던 중앙선, 영동선, 경북선의 현대화와 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 하고 철도공사의 경영합리화를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소재 대학에 철도관련 학과와 철도전문 인재양성 체제가 마련되어 있고, 철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지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철도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영합리화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반세기 동안 철도는 영주시민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발전 하여 왔고 또한 지역발전과 경제에 기여하면서 서로 공존하여 왔음을 깊이 인식하고 단순한 경제성만 따져 「한국철도공사 영주지역본부」를 지사로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할 것을 촉구하며 영주지역본부 존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1월 20일

영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